

《論語》《孟子》중의 'P不P'문형 고찰

邊澄雨*

◁ 目 次 ▷

1. 문제제기
 2. 'P不P' 문형 분석
 - 2.1 同形異構문형
 - 2.2 'P不P'문형의 형식
 3. “傳不習乎”에 대한 어법적 해석
 4. 맺음말
-

1. 문제제기

역대로 《論語》中 “傳不習乎”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 분분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論語集釋》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¹⁾,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 (1) V(傳)+O(不習)의 구조
- (2) VP(不習)+O(傳)의 의미구조
- (3) “傳”을 “專”으로 봄

(1)에 대해서는 何晏《論語集解》²⁾와 焦循《論語補疏》³⁾의 견해가 있다.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論語集釋》pp.18~21

2) 《論語集釋》p.20

3) 《論語集釋》p.19

“言凡所傳之事，得無素不講習而傳之乎？”《論語集解》

(“무릇 전수한 것들을 평소에 연구하고 익혀서 전하지 않았는가?”를 말한다.)

“己所素習，用以傳人，方不妄傳，致誤學者，所謂溫故而知新，可以為師也。”
《論語補疏》

(자신이 평소에 익히고서 남에게 전해주어야만, 비로소 전하여 오류를 배우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이른바 ‘溫故而知新’해야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에 대해서는 朱子《論語集注》의 견해가 있다.

“傳謂受之於師，習謂熟之於己”

(“傳”은 스승에게서 전해 받은 것을 말하며, “習”은 자신에게 그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에 대해서는 《經典釋文》의 鄭注⁴⁾와 包慎言《論語溫故錄》⁵⁾의 견해가 있다.

“魯讀傳為專，今從古。”(《經典釋文》의 鄭注)

(魯論에서는 傳을 專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古論을 따른다.)

“專，謂所專之業也。呂氏春秋曰，‘古之學者，說義必稱師，說義不稱師，命之曰叛。’所專之業不習，則墮棄師說，與叛同科。故曾子以此自省。”《論語溫故錄》

(專이란 전문으로 삼는 業이다. 呂氏春秋에서는, 옛날의 학자들은 義를 강설하는 사람은 ‘師’라 불렀으며, 義를 강설하는데 ‘師’라고 부르지 않으면 ‘叛’이라고 불렀다. 전문으로 삼는 업을 익히지 않으면 스승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어서 ‘叛’과 같은 부류가 되기 때문에 曾子は 이로써 스스로를 반성하였다.)

“傳不習乎?”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게 된 이유는 우선 “傳不習乎?”가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의 두 구절과 나란히 열거되어 있으나, 두 구절과는 달리 “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앞의 두 구절과 같은 구조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구조로 이해해야 하는지 에서부터 비롯된

4) 《論語集釋》p.18

5) 《論語集釋》p.19

황이다. 이는 “傳不習乎”와 같은 구조로도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한 가지의 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며, “傳不習乎?”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선진고문에서 “食不語, 寢不言”과 같은 “술어+不+술어”⁸⁾ 형태의 문장이 “而”字 없이 쓰일 수 있는가와 어떠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論語》와 《孟子》의 예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傳不習乎”의 독특한 문장구성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다면 단지 “傳不習乎”의 문장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고문에서의 “P不P”와 같은 독특한 문장구성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 ‘P不P’ 문형 분석

楊伯峻《論語譯注》의 〈論語詞典〉에 “不”의 횡수는 548번이며, [不亦…乎](11번), [不有](3번)의 횡수까지 모두 합하면 562번으로 나왔으나, 본고에서 계산한 결과 모두 583번이 나왔다.

楊伯峻《孟子譯注》의 〈孟子詞典〉에 나타난 “不”의 횡수는 1066번이며, [不日](1次)와 [不肯](6次)의 횡수까지 합하면 1073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계산해본 결과 “不”는 모두 1084번으로 〈孟子詞典〉과 9번의 차이가 났다.

이상으로 《論語》와 《孟子》에 1667번 출현하는 “不”의 문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 “P不P” 문형과 형태는 같지만 구조가 다른 예⁹⁾와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P不P”문형이 상당수 보였다.

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술어성성분의 指稱化

>	自指化
>	轉指化 → 名詞化

- 8) “술어+不+술어”는 술어의미의 영문 ‘Predicate’의 Initial을 따서 간단히 ‘P不P’로 칭하기로 한다. 여기서 술어의 범위는 동사나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구나 형용사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술어와 謂語를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따로 쓰기로 한다.
- 9) “P不P” 문형과 형태는 같지만 구조가 다른 예는 同形異構문형이라 칭한다.

2.1 同形異構문형

“P不P” 문형과 형태는 같지만 구조가 다른 예는 同形異構문형이라 칭한다. 同形異構문형을 이루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不+P”가 술어성 성분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
- 2) “不+P”가 轉指化하여 앞의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 3) 기타

2.1.1 “不+P”가 술어성 성분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

- (6) 不患人之不己知，患~知人也。(論語1·16)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여라.)
- (7) 不逆詐，不億~信，抑亦先覺者，是賢乎!(論語14·31)
(상대방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미덥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미리 깨닫는 사람이 현명하다.)

(6)(7)에서 “患”, “億”는 뒤에 술어성 성분을 목적어로 가진 상황이며, 이와 같이 “恐”, “稱”, “謂” 등은 뒤에 술어성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P不P”와 층차구조가 다른 同形異構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2.1.2 “不+P”가 轉指化하여 앞의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

- (8) 孟子曰，“中也養~中，才也養~才，故人樂有賢父兄也。(孟子8·7)
(조화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을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난 父兄 갖는 것을 즐겨워한다.)
- (9) 初命曰，誅~孝，無易樹子，無以妾爲妻。(孟子12·7)
(그 맹약의 첫째 條項은 ‘不孝한 者를 죽이고, 世子를 바꾸지 말고, 妾을 正室로 삼지 말 것이다’)

(8)(9)에서는 “不中”과 “不孝”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불효한 자”의 의미로 각각 “養”과 “誅”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P不P”와 층차구조가 다른 同形異構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예가 더 있었지만, 두 개의 예만을 들었다.

2.1.3 기타

- (10) 慎子勃然~悅曰, “此則滑釐所不識也.”(孟子12·8)
 (慎子は 발끈 하여 기분 나빠하며 “그런 것은 나 滑釐(활리)는 모르는 것이요”하고 말하였다.)
- (11) 才~才, 亦各言其子也.(論語11·8)
 (잘났거나 못났거나 역시 각자 자기 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마련이네.)
- (12) 非其君~事, 非其民~使.(孟子3·2)
 (자기가 좋아하는 임금이면 섬기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게 맡게 된 백성들이 아니면 부리지 않는다.)
- (13) 取非其招~往也.(孟子10·7)
 (취하는 데 (정당한 신호로) 부르는 것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10)에서 “勃然”은 여기서 부사어 역할(“不悅”을 수식함)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상태형용사라 부르며 어법기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P不P”와 구조가 다른 同形異構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11)에서의 형태는 “A+不+A”이지만, “P不P”문형의 형식 중에는 “A+不+A”는 없었으며,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건축복문의 형태가 아니며, 동일형용사를 병렬시킴으로써 “잘났거나 못났거나”의 의미를 지낸다.

(12)는 “不”앞의 것이 명사술어문일 뿐만 아니라 “P不P”문형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非”를 씌으로써 가정문을 이루고 있어 “P不P”문형에서 제외시켰다.

(13)은 마치 “V+不+V”형식 같지만, “非”가 앞에 있어 뒤의 “招”를 自指化標識인 “其”로써 名詞謂語化 시킨 후 가정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P不P”와는 다른 형식이다.

(12)와 같은 형태의 문장으로는 <孟子>에 2번 있었다.

- (14) 五十非帛~煖, 七十非肉~飽, 不煖不飽, 謂之凍餒. (孟子13·22)
 (50대의 사람은 깁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70대의 사람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는다. 따뜻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열고 굶주리는 것이라 한다)
- (15) 民非水火~生活. (孟子13·23)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

2.2 'P不P'문형의 형식

'P不P'문형은 다시 “不” 앞의 “P”가 어떤 성분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不” 앞의 성분이 V혹은 VP인 경우와 “不” 앞의 성분이 A혹은 AP인 경우로 각각 소절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2.2.1 “不” 앞의 성분이 V혹은 VP인 경우

이 경우는 다시 6가지 문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 V+不+V
- 2) V+不+VP
- 3) V+不+A
- 4) VP+不+A
- 5) VP+不+V
- 6) VP+不+VP¹⁰⁾

〈V+不+V〉

- (16) 食~語, 寢~言. (論語10·10)
 (식사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 드셔도 말씀을 하지

10) VP는 Verb Phrase의 약칭이고, AP는 Adjective Phrase의 약칭이며, 그 외에 V P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V+O”(동사+목적어), “Adv+V”(부사[혹은 부사어]+동사), “Aux+V”(능원동사+동사), “A+PP”(형용사+개사구)등으로 약칭해서 쓰기로 하겠다.

않으셨다.)

(17) 嫂溺~援, 是豺狼也。(孟子7·17)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끌어당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리요.)

“傳不習乎”와 같은 형식의 “V+不+V”문형을 이루고 있으며, “傳不習乎”를 제외하고 《論語》에는 2번, 《孟子》에 1번의 예가 있었다. (16)(17) 모두 “不” 앞의 성분이 指稱化되지 않았으며, “傳不習乎”에 대한 어법적 해석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V+不+VP〉

(18) 射~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論語3·16)

(활쏘는 데 과녁의 가죽 뚫기를 주로 하지 않고 힘을 쓰는 데 부류물 다르게 하는 것은 옛날의 궁도였다.)

(19) 擇~處仁, 焉得知?(論語4·1)

(仁에 처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20) 有澶台滅明者, 行~由徑, 非公事, 未嘗至於偃之室也。(論語6·14)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길을 갈 때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21) 誰能出~由戶?(論語6·17)

(누가 밖으로 나갈 때 방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2) 子釣而不網, 弋~射宿。(論語7·27)

(공자께서는 낚시질을 하기는 하되 주낙으로 마구 잡지는 않으셨으며, 새를 잡기 위해 주살질을 하기는 했지만 잡지는 새를 쏘지는 않으셨다.)

(23) 立~中門, 行~履闕。(論語10·4)

(멈추어 섬에 있어서 문에 맞추지 않으며, 다니실 때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셨다.)

(24) 必~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 必~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論語12·7)

(부득이 하여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립니까?)

(25) 君子思~出其位。(論語14·26)

(군자는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26) 今也制民之產, 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孟子1·7)

(지금은 백성들의 생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

죽하고 아래로는 妻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합니다.)

(27) 孔子曰, '里仁爲美. 擇~處仁, 焉得智?' (孟子3·7)

(인자한 고장에 사는 것이 좋다. 거처를 택하여 인자한 고장에 살지 않는다 면야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28) 柳下惠不羞汙君, 不卑小官. 進~隱賢, 必以其道. (孟子3·9)

(柳下惠는 더러운 임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작은 벼슬자리를 하찮 게 여기지 않았고, 벼슬하러 나가면 자기의 우수한 면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자기의 이념대로 해 나갔다.)

(29) 孟子曰, "大人者, 言~必信, 行~必果, 惟義所在." (孟子8·11)

(大人은 말을 하는데 꼭 신용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만 꼭 결 과가 있게 하지 않는데, 단지 義만 존재할 뿐이다.)

(30) 柳下惠不羞汙君, 不辭小官. 進~隱賢, 必以其道. (孟子10·1)

(柳下惠는 더러운 임금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작은 벼슬을 사퇴하지 않았고, 벼슬하러 나가면 자기의 우수한 면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자기의 이념대로 해 나갔다.)

(31) 以大夫之招招虞人, 虞人死~敢往. (孟子10·7)

(大夫를 부르는 신호로 虞人을 불렀으니 虞人은 죽어도 감히 가지 못했던 것이다.)

(32) 孟子曰, "以佚道使民, 雖勞不怨. 以生道殺民, 雖死~怨殺者." (13·12)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편안하게 해주는 길로 백성들을 부리면 힘든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살려주는 길로 백성을 죽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33)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愧於天, 俯~忤於人, 二樂也. (孟子13·20)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들에 연고가 없는 것이 첫째의 즐거움이다. 우리 러보아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둘째의 즐거움이다. 天下의 뛰어난 人材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셋째의 즐거움이다.)

(24)의 "必不得已"에서 "必"은 動詞性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우선 "必"이 "不得已"를 꾸민다고 볼 수 없으며, "必"이 동사로 쓰인 예는 李運富(1987)이 <《論語》裏의 "必也, P"句式>라는 문장에서 "必"이 가정복문 중에서 종속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일반적으로 "반드시"라는 의미만으로 보았던 생각을 많이 바꾸게 하였으며, 拙稿(2004)에서는 그 외에도 <《論語》에 李運富(1987)가 밝힌 6가지의 예외에 3개의 예가 비록 가정복문에 쓰이지는 않았지

만, 같은 용법(動詞化)으로 쓰였음을 밝힌 바 있다. 즉, “必不得已”는 여기서는 “반드시 그만 둘 수 없다”라고 이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해야하고 그만 둘 수 없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必不得已”는 병렬구조로 뒤의 “去”를 수식하고 있으며, 수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사어표지로서 “而”가 중간에 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적 해석으로는 “할 수 없이” 정도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법구조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부분은 (31)은 접속사 없이 쓴 점이고 (32)는 접속사 “雖”를 썼다는 점이다. 우선 (31)과 (32)의 차이는 “不” 뒤의 성분이 하나는 “Aux+V”이고 하나는 “V+O”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32)에서 “雖”를 쓴 이유는, 본래 “死”는 自主와 非自主가 대립되는 현상을 보이는 動詞로 自主의 특징을 갖게 되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를 위해 죽다”[예: 死君(임금을 위해 죽다)]의 의미를 갖게되므로 “V[死]+O(不怨殺者)”의 구조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중의현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접속사 “雖”를 쓴 것으로 보인다.

<V+不+A>

(34) 我學~厭而教~倦也. 子貢曰, '學~厭, 智也, 教~倦, 仁也.(孟子3·2)

(‘나는 배우기에 싫증내지 않고, 또 가르치는 데 지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네. 子貢이 말하였다. ‘배우기에 싫증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가르치는 데 지쳐하지 않는 것은 인자한 것입니다.’)

“V+不+A”구조는 단지 《孟子》에만 나타나는 형식이며 4번의 예가 있다. 역시 “V”는 주어가 아니라 謂語로 쓰였으며, “不” 뒤의 “A”는 모두 [+自主]의 의미특징을 지닌다. 또한 “學”·“教”는 여기서 연속성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특정한 시간에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가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P+不+A〉

- (35) 居上~寬, 爲禮~敬, 臨喪~哀, 吾何以觀之哉? (論語3·26)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관대하지 않고 예를 행함이 공경스럽게 하지 않고 상례에 임하여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리오?)
- (36)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倦, 何有於我哉? (論語7·2)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묵묵히 외는 것과, 배움에 임하여 싫증을 내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피곤해 하지 않는 것, 이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가?)
- (37) 抑爲之~厭, 誨人~倦, 則可謂云爾已矣. (論語7·34)
 (그러나 공부하는데 싫증내지 않고 다른사람을 가르치는데 피곤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르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 (38) 夫君子之居處, 食旨~甘, 聞樂~樂, 居處~安, 故不爲也. (論語17·21)
 (대체로 군자는 상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다고 여기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 (39) 執德~弘, 信道~篤, 焉能爲有? 焉能爲亡? (論語19·2)
 (덕을 지니는데 굳게 하지 않고 도를 믿는데 독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덕이나 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어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 (40) 爲富~仁也, 爲仁~富矣. (孟子5·3)
 (財富을 영위하면 인자하지 않게 되고, 인자하게 살면 부유해지지 않는다)
- (41) 孟子曰, “爲政~難.” (孟子7·6)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정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42) 悅親有道, 反身~誠, 不悅於親矣. (孟子7·12)
 (아버이를 기뻐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 자신을 반성하여서 성실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기뻐함을 받지 못한다.)
- (43) 悅親有道, 反身~誠, 不悅於親矣. (孟子7·12)
 (아버이를 기뻐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 자신을 반성하여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기뻐함을 받지 못한다.)
- (44) 淳于髡曰, “男女授受~親, 禮與?” (孟子7.17)
 (淳于髡이 “남자와 여자가 주고 받는데 직접 하지 않는다면 禮입니까?”)
- (45) 曰, “往役義也, 往見~義也.” (孟子10·7)
 (가서 役事를 하는 것은 義롭고, 가서 만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다.)
- (46)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遠矣. (孟子11·8)
 (밤 사이에 길러지는 기운이 남아 있지 못하면 짐승과의 거리가 멀지 않게

된다.)

(47) 孟子曰,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孟子11·16)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天爵이라는 게 있고 人爵이라는 게 있다. 仁·義·忠·信과 善을 즐기어 지치지 않는 것은 天爵이다. 公·卿·大夫는 人爵이다.)

(41)(45)(46)에서 “不”앞의 VP는 모두 自指化되어 주어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46)은 自指化的 표지인 “其”가 쓰였으며, “其”가 쓰인 이유는 아마도 (35)부터 (47)까지의 VP성분은 모두 “V+O”혹은 “V+V”로 2음절로 되어 있지만, (46)만 유독 “違禽獸”의 3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술어성성분의 自指化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40)(41)(45)(46)을 제외한 나머지 “A”는 모두 [+自主]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형용사의 自主化 현상에 대해서는 고대 중국어와 관련한 문장은 없지만, 袁毓林(1999)의 <祈使句式和形容詞的類>에서 현대중국어의 형용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적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人]의 의미특징을 지니며 자신이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나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¹¹⁾가 自主化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중국어 뿐만 아니라 선진고문의 형용사에도 마찬가지로 自主化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P+不+V>

(48) 見義~爲, 无勇也.(論語2·24)

(의로운 일을 보고서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49) 成事不說, 遂事不諫, 既往~咎.(論語3·21)

(완성된 일은 거론하지 않고, 끝난 일은 간언하지 않고, 과거는 탓하지 않는다.)

(50) 事父母几諫, 見志不從, 又敬~違, 勞而不怨.(論語4·18)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부모님에게 잘못이 있으면 부드럽고 완곡하게 간하여, 부모님이 나의 간언을 따르지 않음을 알더라도 또한 공경하고 부모

11) 예를 들면, “謙虛, 驕傲, 靈活, 死板, 穩重, 輕浮, 大方, 小氣, 勤快, 文雅, 粗野”등이 自主形容詞이다.

- 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힘이 들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 (51) 夫子循循然善誘人，博我以文，約我以禮，欲罷不能。(論語9·11)
 (선생님께서서는 사람을 차근차근 잘 이끄셔서 학문으로써 나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고 예로써 나의 행위를 절제해주시니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 (52) 色惡不食，臭惡不食，失飪不食，不時不食，割不正不食，不得其醬不食。(論語10·8)
 (빛깔이 나쁜 것을 잡수시지 않으셨고, 냄새가 나쁜 것을 잡수시지 않으셨고, 알맞게 익지 않은 것을 잡수시지 않으셨고, 제 때가 아니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자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으면 잡수시지 않으셨고, 그 음식에 어울리는 장이 없으면 잡수시지 않으셨다.)
- (53) 子曰：“內省不疚，夫何憂何懼？”(論語1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꺼림칙한 것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 (54) 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論語12·7)
 (옛날부터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
- (55) 夫聞也者，色取仁而行違，居之不疑，在邦必聞，在家必聞。(論語12·20)
 (스스로 그것에 처하여 의심치 않다.)
- (56) 夭壽不貳，修身以俟之，所以立命也。”(孟子13·1)
 (短命하거나 長壽하거나 의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德을 닦아서 天命을 기다리는 것이 天命을 지키는 방법이다.)
- (57) 君子所性，雖大行不加焉，雖窮居不損焉，分定故也。(孟子13·21)
 (君子가 本性으로 지나는 것은, 위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보탬이 되지 않고, 궁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덜어내지 않는다. 分(分)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58) 觀水有術，必觀其瀾。日月有明，容光必照焉。流水之爲物也，不盈科而行，君子之志於道也，不成章不達。”(孟子13·24)
 (물 보는 데는 방법이 있다. 반드시 그 波瀾을 보아야 한다. 해와 달은 밝은 빛을 지니고 있어 작은 틈바구니에까지도 반드시 다 비친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구멍을 채우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君子가 道에 뜻을 두면 文彩를 이룩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境地에 도달하지 않는다.)
- (59) 經德不回，非以干祿也。(孟子14·33)
 (德으로써 살아 나가고 退縮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여서 爵祿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孟子譯注》: 經, 行也 / 回, 同“違”.

(49) “成事不說，途事不諫.”에서 “成事”와 “途事”는 형태적으로는 “V+O”구

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動詞“成”과 “遂”가 “事”를 수식하여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48)부터 (59) 중에서 (49)의 “既往”만 自指化하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의 “成事不說, 遂事不諫,” 예의 구조에서 유추되는 작용으로 自指化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VP+不+VP〉

- (60) 射不主皮, 爲力~同科, 古之道也.(論語3·16)
 (활쏘는 데 과녁의 가죽 쫄기를 주로 하지 않고 힘을 쓰는 데 부류를 다르게 하는 것은 옛날의 궁도였다.)
- (61) 吾聞之也, 君子周急~繼富.(論語6·4)
 (내가 들건대, 군자는 다급한 사람을 구제하지 부유한 사람에게 보태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 (62)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論語7·3)
 (덕이 닦아지지 않는 것, 학문이 탐구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지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선하지 않은데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이다.)
- (63) 舉一隅~以三隅反, 則不復也.(論語7·8)
 (한 방향을 가르쳐주면 나머지 세 방향을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복해서 그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 (64) 當仁~讓於師.(論語15·36)
 (인함에 당면하면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 (65) 君子謀道~謀食./君子憂道~憂貧.(論語15·32)
 (군자는 도를 추구하지 먹을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 (66) 好仁~好學, 其蔽也愚; 好知~好學, 其蔽也蕩; 好信~好學, 其蔽也賊; 好直~好學, 其蔽也絞; 好勇~好學, 其蔽也亂; 好剛~好學, 其蔽也狂.(論語17·8)
 (인자하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우둔해지는 것이고, 지혜롭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까불게 되는 것이고, 믿음직스럽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끈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가혹해지는 것이고, 용맹스럽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난폭해지는 것이고, 굳세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무모해지는 것이다.)
- (67) 孟子見梁襄王, 出, 語人曰, “望之~似人君, 就之而不見所畏焉.(孟子

1·6)

(孟子께서 梁襄王을 만나보고 나오시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 그를 바라보니 임금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 앞에 가까이 나가 봐도 두려워 할 만한 데가 보이지 않는다.)

(68) 故曰，爲高必因丘陵，爲下必因川澤，爲政～因先王之道，可謂智乎?(孟子7·1)

(그래서 높아지려면 반드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고, 낮아지려면 반드시 개울과 못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데 先王의 道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69) 悅賢～能舉，又不能養也，可謂悅賢乎?(孟子10·6)

(賢良한 人材를 좋아하면서 등용하지 못하고 또 그를 기르지 못하면, 현량한 인재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70) 君子有三樂，而王天下～與存焉。(孟子13·20)

(君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나 천하의 왕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문형에서는 指稱化한 경우는 없었으며, 모두 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不” 앞의 성분이 A 혹은 AP인 경우

이 경우는 다시 6가지 문형으로 나눌 수 있다.

- 1) A+不+V
- 2) A+不+VP
- 3) AP+不+A
- 4) AP+不+V
- 5) AP+不+AP
- 6) AP+不+VP

〈A+不+V〉

(71) 色惡～食，臭惡～食。(論語10·8)

(빛깔이 나쁘면 드시지 않으셨고, 냄새가 나쁘면 드시지 않으셨다.)

(72) 孟子曰, “以佚道使民, 雖勞~怨, 以生道殺民, 雖死不怨殺者.” (孟子1·3·12)

(孟子께서 말씀하시었다. “편안하게 해주는 길로 백성들을 부리면 힘들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살려주는 길로 백성을 죽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71)에서는 “A”가 단독으로 오지 않고 주어가 있으며, 謂語역할을 하면서, 가정복문을 이루고 있다.

(72)에서 “雖”를 쓴 이유는 “勞”가 “수고스럽다”는 의미의 형용사도 있지만, 상당수 품사활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뒤에 목적어를 가져 “수고롭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V[勞]+O[不怨]¹²⁾”의 구조로 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접속사 “雖”를 쓴 것으로 보인다. “勞”가 “수고롭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不自爲正, 卒勞百姓.”《禮記·緇衣》

(스스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결국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

〈A+不+VP〉

(73) 其知可及也, 其愚~可及也.(論語5·21)

(그의 지혜로움은 따라갈 수 있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따라갈 수 없다.)

(74) 小固~可以敵大, 寡固~可以敵衆, 弱固~可以敵強.(孟子1·7)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근본 큰 나라를 對敵할 수 없는 것이고, 少數의 병력은 근본 多數의 병력을 對敵할 수 없는 것이고, 약한 나라는 근본 강한 나라를 對敵할 수 없는 것입니다.)

(75) 曰, “宰我子貢 有若, 智足以知聖人, 汙~至阿其所好.(孟子3·2) (《孟子譯注》汙: 下, 卑劣)

(宰我和子貢과 有若은 그들의 지혜가 聖人の 위대함을 알아볼 만하였으므로, 비열함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에 아첨하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걸세.)

(76) 仁~可爲衆也.(孟子7·7)

12) 선진고문에서는 不怨이 “원망하지 않는자”로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轉指化 되는 현상이 빈번함.

(仁政은 많은 수효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77) 其詳~可得而聞也,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嘗聞其略也.(孟子10·2)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다. 諸侯들이 그 제도가 자기네를 해치는 것을 싫어하여서 다 그것을 기록한 典籍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대략을 들은 일이 있다.)

(78) 曰, “不可. 康誥曰, ‘殺越人于貨, 閔~畏死, 凡民罔不讞.’(孟子10·4)
(《孟子譯註》: 閔, “強橫”)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된다. 康誥에 사람을 죽이고 그 물건을 빼앗고도 횡포스럽고 감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미워한다.

(79)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能奪也.(孟子11·15)

(먼저 자기의 큰 것을 확립시켜 놓으면 자기의 작은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된다.)

(73)은 自指化의 구조로 앞의 “愚”를 自指化시키는 표지로 “其”를 쓰고 있으며, 주어역할을 하고 있다. (74)“A”는 “小, 寡, 弱”로서 모두 轉指化하여 작은 나라, 병력이 적은 나라, 약한 나라의 의미로 쓰여 주어역할을 하고 있다.

(75)에서 “汙”는 형태표지는 없으나 自指化되어 주어역할을 하고 있다. “V P”에서 “至”는 [-自主]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76)에서 “仁”은 轉指化하여 “仁政”을 의미하며 주어역할을 하고 있다.

(77)에서 “詳”의 앞에 自指化표지인 “其”가 쓰여 自指化되었으며, 주어역할을 하고 있다.

(78) 閔~畏死처럼 (78)만 “VP”가 능원동사 형태가 아니며, “A+不+VP”에서는 유일하게 “A”가 指稱化되지 않고 “閔”과 “不畏死”가 각각 병렬구조로 謂語역할을 하고 있다.

(79)“小”는 自指化표지가 “其”와 “者”를 한꺼번에 쓴 경우로 自指化되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역시 주어역할을 하고 있다.

“A+不+VP”구조에서 VP의 V는 (78)을 제외하고 모두 [-自主]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自主]동사 중에서 (75)만 “至”로 일반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능원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AP+不+A〉

(80) 非所謂謙也, 貧富~同也.(孟子2·16)

(그것이 지나쳤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貧富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孟子》에만 있는 문형으로, AP는 AA구조로서 반의어병렬로 이루어져 있으며 自指化되어 主題主語 역할을 하고 있다.

〈AP+不+V〉

(81) 不憤~啓, 不悱~發. 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7·8)

(학생이 궁금한 것이 가득차서 답답해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계도해주지 않고, 학생이 표현해내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일깨워주지 않으며, 한 방면을 가르쳐주면 나머지 세 방면을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복해서 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82) 不時~食. 割不正~食.(論語10·8)

(자르는 것이 반듯하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셨다.)

(83) 席不正~坐.(10·12)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으셨다.)

(81)(82)(83)은 “AP”에서 “A”가 모두 謂語 역할을 하고 있으며, “AP”가 모두 “不”로 수식을 받고 있으며, (82)의 뒤의 예와 (83)은 주어까지 나타나고 있다.

〈AP+不+AP〉

(84) 曰, “爲肥甘~足於口與? 輕煖~足於體與? 抑爲采色不足視於目與? 聲音不足聽於耳與?(孟子1·7)

(살찌고 맛있는 것이 입에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가볍고 따뜻한 것이 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彩色이 눈으로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音聲이 귀로 들으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84) AA는 형용사의 병렬로 自指化되어 主題主語 역할을 하고 있다.

〈AP+不+VP〉

- (85) 德之不修，學之不講，聞義不能徙，不善~能改，是吾憂也。(論語7·3)
 (덕이 닦아지지 않는 것, 학문이 탐구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
 운지를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선하지 않은데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이다.)
- (86) 得志，與民由之，不得志，獨行其道。富貴~能淫，貧賤~能移，威武不
 能屈，此之謂大丈夫。(孟子6·2)
 (뜻을 이루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해 나가고, 뜻을 이루지 못하면 혼자서
 자기의 道를 실천하여, 부유하고 貴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못하
 고, 貧하고 賤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고, 무서운 무력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어야 그것을 大丈夫라고 하는 거요.)

(85)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선하지 않은데, 고치지 못하다”와
 “선하지 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다”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앞의 해석은 그
 대로 謂語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뒤의 해석은 이미 自指化되어
 의미상 “改”의 목적어로 볼 수 있으나, 앞의 문장 “聞義不能徙”의 구성방식은
 自指化되지 않은 구조이므로 그 구조처럼 그대로 謂語의 역할을 하여 긴축복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파악함이 옳을 것 같다.

(86)에서 AA는 (84)에서의 일반 형용사의 병렬과는 달리 반의어병렬로 이
 루어져 있으며 自指化되어 施事主語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으로 “P不P”문형을 “不”앞의 성분이 V,VP인 경우와 A,AP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不”앞의 성분이 V,VP인 경우는 총 80개의 예에서 4
 번의 예가 自指化되어 주어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번의 예는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1번의 예(必不得已)는 병렬구조로 謂語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긴축복문구조를 띠고 있다. “不”앞의 성분
 이 A,AP인 경우, 총 23개의 예에서 13개는 指稱化되어 주어역할을 하였고,
 1개의 예는 병렬구조로 謂語역할을 하고 있어 긴축복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있으며, 9개의 예만이 謂語역할을 하면서 긴축복문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謂語역할을 하면서 긴축복문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71)(72)(8
 1)(82)(83)(85)로 다음과 같다.

- (71) 色惡~食, 臭惡~食.(論語10·8)
- (72) 孟子曰, “以佚道使民, 雖勞~怨, 以生道殺民, 雖死不怨殺者.” (孟子13·12)
- (81) 不愼~啓, 不悱~發, 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論語7·8)
- (82) 不時~食, 割不正~食.(論語10·8)
- (83) 席不正~坐.(論語10·12)
- (85) 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能改, 是吾憂也.(論語7·3)

“不”앞의 성분이 A인 경우는,

- (1)주어가 앞에 있으며, 가정복문을 이루고 있다.(71)
- (2)접속사가 있는 구조를 가졌다. 양보복문을 이루고 있다.(72)

“不”앞의 성분이 AP인 경우는,

AP가 일률적으로 “不+A”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82)(83)은 주어까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P不P”문형 중 앞의 “P”가 A, AP인 경우는 총 23개로 그 중에서 긴축복문의 형태를 띠는 것은 8개이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롭게 긴축복문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P不P”문형에서 “P”의 구성성분에 따른 분포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不”앞의 P가 V, VP인 경우>

	《論語》		《孟子》	
V+不+V		3		1
V+不+VP	VP: V+O(8) Aux+V(2)	10	VP:V+O(4) Aux+V(3) Adv+V(2) V+PP(2)	11
V+不+A		0		4
VP+不+A	VP:V+O(11)	11	VP:V+O(8) V+V(1)	9
VP+不+V	VP:V+O(4) Adv+V(3) Aux+V(1)	8	VP:V+O(3) Adv+V(2) V+V(1)	6
VP+不+VP	VP1:V+O(13) VP2:V+O(10), Aux +V(1), V+PP(1), PP+V(1)	13	VP1:V+O(4) VP2:V+O(2) Aux+V(1) Prep+V(1)	4
계		45		35

〈“不”앞의 P가 A, AP인 경우〉

	《論語》		《孟子》	
A+不+V		2		1
A+不+VP	VP: Aux+V(1)	1	VP: V+O(2) Aux+V(6)	8
AP+不+A		0	AP: A+A(1)	1
AP+不+V	AP: Adv+V(5)	5		0
AP+不+AP		0	AP: A+A(1) VP: A+PP(1)	2
AP+不+VP	AP: Adv+A(1) VP: Aux+V(1)	1	AP: A+A(2) VP: Aux+V(2)	2
계		9		14

《論語》·《孟子》 전체 1667개의 “不”와 관련한 문장 중에서 103개의 문장이 “P不P”문형으로 쓰여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앞의 “P”가 謂語로 쓰여 긴축복문을 이루는 경우는 5.3%로 나타나, “不”를 이용한 긴축복문 형태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不P”문형의 쓰임은 우선 《論語》:《孟子》의 비율은 54:49로써 《論語》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論語》와 《孟子》의 字數를 비교해 보면 15,921:35,389로 《孟子》의 字數가 2배에 가까웠다¹³⁾. 그 字數의 비율에 비해 《論語》에서 “P不P”문형의 쓰임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쓰여야 정상일 텐데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論語》가 口語體의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3. “傳不習乎”에 대한 어법적 해석

“傳不習乎”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게 된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3) 《論語》와 《孟子》의 字數는 각각 다음 著書의 통계를 근거로 하였다.
拙稿(1997) <《論語》名詞·動詞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未刊))
崔立斌(1996) <《孟子》的名詞·動詞·形容詞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未刊))

(1) “傳不習乎”가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의 두 구절과 나란히 열거되어 있으나, 두 구절과는 달리 “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구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

(2) 상당히 간단한 문장구조로 되어 있어 그 문장성분의 역할을 파악하기 힘들며, 동사구조도 얼마든지 指稱化되어 목적어 구실을 하거나, 혹은 주어이지만 의미상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분석에 어려움을 준다.

(3) “傳”과 “習”의 의미특성상 “傳”이라는 행위의 주체와 “習”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달라야 하며, “傳”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고 “習”의 행위가 뒤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상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1)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P不P”문형을 살펴보았듯이 “P不P”문형 중 “不” 앞의 성분이 V, VP일 경우 거의 모든 예가 술어역할을 하고 있고 “而”없어도 긴축복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의 두 구절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와 관련해서 간단한 문장구조라 함은 앞에서 분석한 “V+P+V”의 형식과 같이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러한 구조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예를 방증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傳”을 謂語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5) 食~語, 寢~言.(論語10:10)

(식사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잠자리에 드셔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86) 嫂溺~援, 是豺狼也.(孟子7·17)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끌어당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리요.)

(3)과 관련해서 행위의 주체가 다르고 행위에 대한 시간상의 순서가 존재하는 것은 “V+不+V”구조인 (86)의 예에서도 분명히 “溺”의 행위가 있는 후에 “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같은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어 “V+不+V”의 구조로 보아야 함은 더욱 명백해진다. 이러한 이유와 “傳不習乎”가 반성(三省)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거의 상황을 반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수)하는데 (전수한 내용을) 의하지 않았는가?”로 해석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傳”의 연속성이다. 이에 대해서 段德森(1992)의 《簡明古漢語同義詞詞典》에서 “傳”과 “遞”의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動詞，都可以表示傳遞、傳送。

《說文》：“傳，遽也。本義是驛舍、驛站，引申爲傳遞。《正韻》：“傳，續也。”《經典釋文》：“傳者，相傳繼續也。”《說文》：“遞，更易也。”本義是交替，引申爲傳遞。《增韻》：“遞，傳遞也。”二者的區別是“傳”是由上一代交給下一代，或由一方交給另一方，強調連續不斷“遞”由一个接一个送過去，強調依次更番相接。

즉, “傳”은 동작의 연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수하는 행위인 “傳”은 한 번으로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연속해서 일어나는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傳不習乎”를 풀어서 해석한다면, “(계속해서)전수를 하는데 (전수한 내용을)그때그때(혹은 적당한 때에) 익히지 않았는가?”¹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맺음말

《論語》중에서 “傳不習乎?”의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장의 쓰임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論語》와 《孟子》를 살펴본 결과 그 중에는 상당수의 “P不P”문형이 접속사“而” 없이 긴축복문 형태로 쓰이고 있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不” 앞의 성분이 V 혹은 VP인 경우

- 1) V+不+V
- 2) V+不+VP

14) 이와 관련하여 “學而時習之”의 문구는 “學이라는 연속선상에서 그때 그때 적당한 때에 배우고 익힌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문구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時”로써 수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으나, “傳不習乎”는 짝이否定副詞 “不”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時”를 쓰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傳”은 음을 달리하는 명사(去聲, 傳記 혹은 전해내려오는 글) 외에 다른 용법이 없다.

“傳”이 동사로 쓰일 때는 이중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중목적어에서 간접목적어의 앞에 “於”, “于”가 놓이기도 한다.

- (1) “舜禪天下而傳之於禹.”《韓非子·十過》
- (2) “湯殺君而欲傳惡聲於子, 故讓天下於子.”《韓非子·說林上》
- (3) “堯欲傳天下于舜.”《韓非子·外儲說右》
- (4) “夫至乎誅諫者必傳之舜, 乃其難也.”《韓非子·外儲說右》

11개의 전적에 나타난 예를 살펴보았으나, 주어 역할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謂語 역할을 하거나 간혹 賓語 역할을 하였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傳”이 主語 역할을 하거나, 혹은 主語 역할을 하지만 “(2)VP[不習]+O[傳]”처럼 의미상의 賓語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論語》에 다음과 같은 특이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 (5) 食不語, 寢不言.(論語10·106)
- (식사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잠자리에 드셔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食”과 “寢”은 “먹은 것”, “먹는 것”, “잠잔 것”, “잠자는 것”등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 즉, “食”과 “寢”이 主語 역할을 하거나 指稱化⁷⁾되지 않는 상

6) 이 번호는 《論語》뿐만 아니라 《孟子》에서도 楊伯峻의 《論語譯注》와 《孟子譯注》의 번호를 따랐다.

7) 宋紹年(1998)은 朱德熙先生의 “自指和轉指”의 관점 및 胡裕樹·范曉(1994)의 “名詞化”와 “名物化”는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해석을 하였다. 名詞化개념은 주로 통사영역에 적용이 되며, 指稱化개념은 주로 의미영역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名詞化현상은 반드시 指稱化현상을 수반한다. 指稱化는 名詞化와 다르지만 指稱化는 名詞化를 따질 수 있는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만약 술어성성분의 名詞化를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自指와 轉指는 名詞化과정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단계로 볼 수 있다. 自指化는 여전히 그 과정에 속해 있지만, 轉指化는 名詞化의 완성을 나타낸다. 술어성성분이 轉指化한 이후에는 名詞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규칙은 무표((unmarked))적인 轉指化현상 속에 특히 잘 나

- 3) V+不+A
- 4) VP+不+A
- 5) VP+不+V
- 6) VP+不+VP

“不” 앞의 성분이 A 혹은 AP인 경우

- 1) A+不+V
- 2) A+不+VP
- 3) AP+不+A
- 4) AP+不+V
- 5) AP+不+AP
- 6) AP+不+VP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P不P”문형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不”앞의 성분이 V,VP인 경우와 A,AP인 경우는 그 내부구조의 분포는 다르게 나타났다.

“不”앞의 성분이 V,VP인 경우는 총 80개의 예가 있었으며, “VP+不+A” 구조에서 3개의 예가 自指化되었고, 그 특징은 다른 예들과는 달리 “A”가 自主化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VP+不+V”에서는 2개의 예는 동사가 관형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1개의 예는 앞의 “成事不說, 遂事不諫.” 예의 구조에서 유추되는 작용으로 自指化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不+VP”에서는 1개의 예(必不得已)가 병렬구조로 謂語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긴축복문구조를 띠고 있다.

“不”앞의 성분이 A,AP인 경우, 총 23개의 예에서 14개는 모두 指稱化되어 주어역할을 하였고, 1개의 예는 병렬구조로 謂語역할을 하고 있지만 긴축복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있으며, 8개의 예만이 謂語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P不P”문형 중 앞의 “P”가 A,AP인 경우는 총 23개로 그 중 긴축복문의 형태를 띠는 것은 8개로,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不”앞의 성분이 A인 경우는,

- (1) 주어가 앞에 있으며, 가정복문을 이루고 있다.
- (2) 접속사가 있는 구조를 가지며, 양보복문을 이루고 있다. (72)

“不”앞의 성분이 AP 인 경우는,

AP가 일률적으로 “不+A”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2개의 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P不P”문형은 선진고문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문형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傳不習乎?”와 같은 문장이 제대로 번역되고 이해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진고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서적류〉

楊伯峻, 《孟子譯注》, 中華書局, 1990.

程樹德, 《論語集釋》, 中華書局, 1990.

楊伯峻, 《論語譯注》, 中華書局, 1992.

〈논문류〉

李運富, 〈《論語》裏的“必也, P’句式”〉, 《中國語文》第3期, 1987.

崔立斌, 〈《孟子》的名詞·動詞·形容詞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未刊)), 1996.

拙稿, 〈《論語》名詞·動詞研究〉(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未刊)), 1997.

宋紹年, 〈古代漢語謂詞性成分的指稱化與名詞化〉, 《古漢語語法論集》, 語文出版社, 1998.

袁毓林, 〈祈使句式和形容詞的類〉《袁毓林自選集》,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

拙稿, 〈《論語》에 나타난 몇 가지 副詞에 대한 고찰〉《中國語文論譯叢刊》12輯, 2004.

【中文提要】

歷來對“傳不習乎?”的解釋頗有分歧, 代表性的解釋3種. 爲了考察, 我們從《論語》·《孟子》中找到1667個與“不”有聯繫的句子, 從中我們

發現有82個句子以“P不P”的形式構成緊縮複句，佔5.3%。按照“P不P”句型中“P”的構成成分，可以分爲12種句型如下：

“不”前的成分是V或VP.

- 1) V+不+V 2) V+不+VP 3) V+不+A 4) VP+不+A
5) VP+不+V 6) VP+不+VP

“不”前的成分是A或AP.

- 1) A+不+V 2) A+不+VP 3) AP+不+A 4) AP+不+V
5) AP+不+AP 6) AP+不+VP

經過以上“P不P”的語法特徵和句型的分析，我們應該把“傳不習乎”看做“P不P”句型的緊縮複句。

這種“P不P”句型在先秦漢語裏非常活躍的一種句型，正確地理解這種句型不但對“傳不習乎”句子的理解很重要，而且對掌握先秦漢語也非常重要的

【主題語】

論語, 孟子, 긴축복문, P不P문형